

사진 부착된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동구 발전 한목소리 지지 호소

광주 동구청장 후보들 마지막 유세

■ 대선·재보선 투표 어떻게 보선 지역은 별도 투표 용지에 한번 더 기표 부재자 신청후 투표 못한 유권자도 투표 가능

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결전이 날이 밝았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란 남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이번 대선과 관련해 전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80%에 달했다. 이는 17대 대선 응답률 67%보다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는 투표관리관이 전국의 각 투표소에서 투표 개시를 선언하면서 시작된다. 이번 대선에선 광주 동구청장·동구의원(나 선거구)·여수시의원(바·자 선거구)·화순군의원(가 선거구) 등 5곳의 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투표절차는 간단하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지참

하고 투표소에 가면 된다. 미리 발송된 투표 안내문에 기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투표 장소에 가면 보다 신속하게 투표를 마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번 대선에서는 전국 1만3542곳의 투표 장소 중 지난 4·11 총선과 비교해 547곳이 변경됐다는 점이다.

미리 자신이 속한 지역의 투표장소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투표장소를 찾는 방법은 투표안내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찾기 메뉴에서 가능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해 문의할 수 있다.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는 선거인명부 대조소에서 자신이 가져온 신분증으로 신분확인 절차를 받으면 된다. 이후 투표용지 교부소에서 백색 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소중한 한 표 행사가 끝난다.

다만,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후보(기호 3번)의 사퇴로 이번 대선 후보자는 6명이 된 만큼 투표용지에 인쇄돼 있는 이 전 후보의란에 기표할 경우 무효표가 된다.

광주·여수·화순 등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선 별도로 주의 투표용지에 한 번 더 기표를 해야 한다. 동구청장 투표용지는 하늘색, 나머지 동구의원·여수시의원·화순군의원 용지는 연미색이다.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유권자 중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도 이날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 부재자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제18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광주 동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새누리당 최정원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후보에게도 표를 줘 20%대의 득표율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최 후보는 “열악한 환경 속에 늦게 선거운동을 시작해 불리한 점이 많았지만, 지역의 정서와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구청장 후보”라며 “힘 있는 여권 후보로서 동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는 것 역시 어떤 후보보다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후보는 선거일을 하루 앞둔 17일 ‘투표참여 호소문’을 내고 막판 지지를 당부했다. 노 후보는 호소문을 통해 “19일은 오직 동구 부활, 주민복지, 문화전당 동구의 출발”이라며 “행복한 동구를 위해 저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노 후보는 “아시아 문화수도도 꿈꾸는 동구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민심 화합”이라며 “이를 위해 끝까지

행복한 동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 선거를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양혜영 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권은 주민보다 투표하는 주민들로부터 나오므로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양 후보는 또 “동구가 전임 구청장의 중도사퇴에 연이어 거액의 공금비리 혐의까지 터져 행정이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 놓였다”며 “새롭게 변화하는 동구가 힘차게 출항하도록 관내 기업, 민간과 공공기관에서도 종사자들이 투표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투표지분류기 분류후 두차례 수작업 확인

■ 개표 어떻게

개표는 두 차례의 수작업 확인을 거친다.

19일 오후 6시 투표 종료 직후 투표함이 전국 252곳의 개표소에 도착하면 접수단계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모든 과정을 참관한다.

개표 과정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를 한 뒤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확인된 뒤 계수기로 집계하고 위원 검열에서 다시 수작업 확인 등으로 진행된다.

선관위는 분당 260~300매 분류 가능한 투표지분류기를 1700대 운영할 계획이다. 참관인은 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를 정확하게 분류했는지 이를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에서 정확하게 확인하는지를 참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투표지분류기와 심사·집계부, 위원검열을 거쳐 확인된 개표 결과는 각 개표소별 위원장이 공표한다. 위원장이 공표한 결과는 개표소에 게시하고 참관인과 언론사 취재진에게도 제공, 개표소 결과와 선관위 홈페이지 결과가 서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산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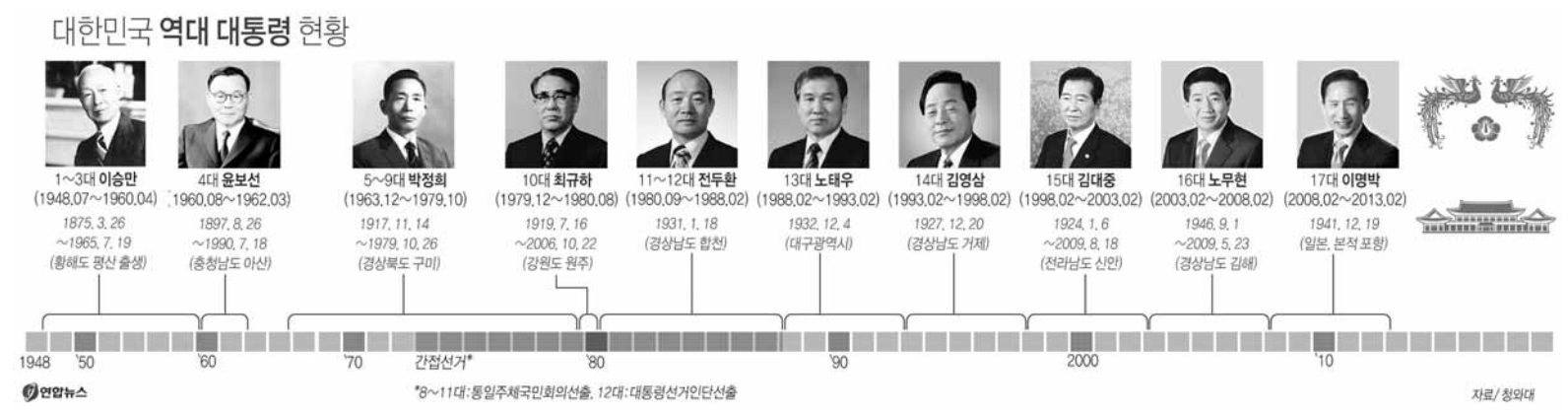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전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고 밝혔다.

투표관리력은 투표관리관 1만 3542명과 투표사무원 9만 2185명, 투표안내 도우미 5만 3886명 등 총 15만 9613명에 달한다.

투표함을 재질을 종이에서 강화 플라스틱으로 견고하게 바꾸었고, 구조를 개선해 잠금장치도 3곳에 하도록 기밀성을 강화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투표는 투표함을 열어 안팎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잠금장치를 한 뒤 시작되며, 종료 뒤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봉인하게 된다. 투표함은 투표관리관에 의해 개표소까지 옮겨지며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씩과 경찰이 동행한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투표율 4대 97% 최고, 17대 63% 최저

■ 역대 대통령 선거 기록들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산술적으로는 19번째 대선이다. 1960년 직선으로 치러진 3·15 대선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4·19 혁명으로 이 선거가 무효처리됐기 때문이다.

역대 대선에서 직선은 이번 18대를 포함해 2대~7대, 13~16대 등 모두 12차례이고 간선은 7차례다.

직선제 대선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

을 기록한 선거는 4대(60년3월15일)로 97%의 투표율을 보였다. 6·25 전쟁 이후 처음 실시된 3대(56년5월15일)는 94.4%,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13대(87년12월16일)가 89.2%로 뒤를 잇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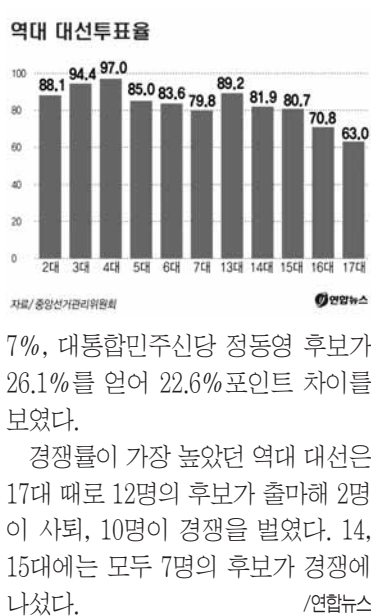
16대 대선에서 투표율이 70.8%로 푹 떨어진 데 이어 지난 17대 대선은 투표율이 63%로 역대 최저였다.

4대 직선은 투표율 외에 사상 최고 득표율과 최저 경쟁률 기록도 갖고 있다. 이승만 후보의 강력한 경쟁자

였던 민주당 조병옥 후보가 병사하는 바람에 이 후보가 단독출마해 유효투표의 100%(유권자 총수의 86%)를 얻었기 때문이다.

4대 직선이 무효화된 점을 감안하면 역대 득표율은 2대 이승만 대통령이 얻은 74.6%가 가장 높고 13대 노태우 대통령이 얻은 36.6%가 가장 낮다.

역대 선거에서 당선자와 차점자 후보 간의 득표 비율은 17대 매 가장 많이 벌어졌다. 이명박 당선자가 48.



선거일 선거운동 못한다

선관위, 투표 독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인 19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투표소 주변을 비롯해 거리 유세가 잦았던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 ▲선거운동용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한 채 지지 호소·인사 행위 ▲투표소 등에서 후보자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정당·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허용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단순한 투표인 증상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개인·단체 명의로 현수막·피켓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정당·후보자 경보로 투표참여 권유 피켓을 선거사무관계자가 활용하는 행위 ▲단순 투표참여 권유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 ▲사기업이 영업활동 일환으로 투표자에 대한 경품행사 등은 허

용된다.

다만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거나, 확산장치·녹음기·녹화기를 활용하거나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또 ▲정당·후보의 선거벽보·선전 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사진, 누구를 찍었는지 등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활용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와 연계하거나 특정 연령층·계층만을 대상으로 투표자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철저한 독일인 인의 장인 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95%적중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률 보장)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률 보장)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대지, 전, 답, 입야 매매 신속처리

가족묘지, 남골묘, 산산, 농장, 전원주택지
공정용지, 임대용 아파트, 원룸, 상가 다량물건보유

20년 원조 팍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델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정원)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검색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남평 강변도시를 주목하세요!

투자.. 지금이 기회!!

혁신도시 보다 저렴한 분양가!
광주시 남구와 공동학군!
대단위 아파트단지 분양예정!
관광호텔, 오피스텔 신축!
점포겸용 주택4층, 근생, 상업용지!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대형 목욕탕 매매

1만여 세대 독점
성업중인 최신편
목욕탕, 높은 수익률

대지 2,480㎡(750평)
건물 4,460㎡(1350평)
용지 20억원 이상 가능
매매가 40억원 (감정가 58억원)
실준비금 19억원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011-642-7777

가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금매

“담양” 무인텔
대지 : 5,048㎡
연건평 : 2,474㎡
객실 : 32개
현성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담후 결정

염전 금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일부동산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남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시찰분과 연일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히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111-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대인동 소정사건내선)